

나주, 출향 기업인들 고향사랑 2천만 원 기탁

남평읍 출신 기업인 3명 뜻 모아 고향 발전 응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 사진 /나주시 제공

나주 남평읍 출신 출향 기업인들이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며 지역 발전을 응원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면서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나타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남평읍 출신 출향 기업인 ㈜이학갈비 윤희원 대표와 허브푸드㈜ 김기엽 대표, 양은영세무회계사무소 양은영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총 2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10일 밝혔다.

윤희원 대표는 남평읍 상남마을 출신으로 현재 재인천나주향우회 부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고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500만 원, 2025년과 올해 각각 1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4년간 총 3천만 원을 기

탁하며 꾸준한 고향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남평읍 오계리 출신인 허브푸드㈜ 김기엽 대표와 풀림리 출신인 양은영세무회계사무소 양은영 대표는 윤희원 대표의 지속적인 기부에 뜻을 함께하며 올해 처음으로 각각 500만 원씩을 기부했다.

세 기업인의 이번 기부는 출향 향우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고향 사랑기부제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출향 향우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고향 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창평면서 2차 '이어봄 사업' 추진

화순군,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훈련 실시

담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박종원, 민간위원장 김광훈)는 창평면 부동·하산·외동마을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차 '이어봄 사업'을 추진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날 사업에는 담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창평면복지기동대원, 이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취약계층 10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를 살피고, 가구별 상황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했다.

'이어봄 사업'은 주민의 안부를 살피고 복지 욕구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어주는 민간협력사업이다. 군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을 계속 다한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에 대비해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형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지난 9일 사평면 사평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2026년 산사태 재난대비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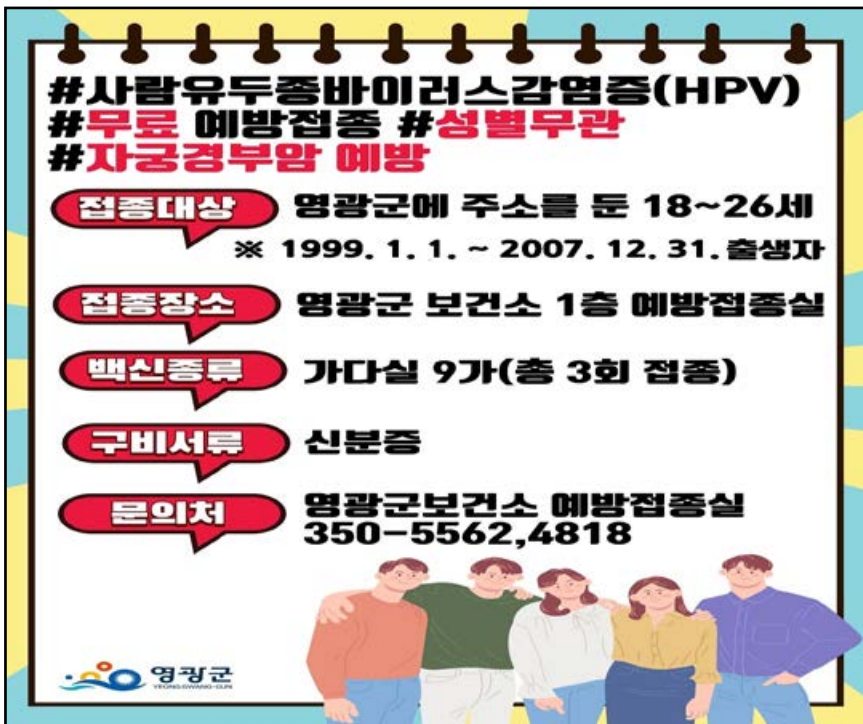
이번 훈련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과 공무원, 산림재난대응단 등 60여 명이 참여해 산사태 경보 발령 상황을 가정한 주민 대피와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참가자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주민 대피와 상황 전파,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18~26세 청년층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1999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영광군민 남녀 누구나



HPV9 무료 예방접종 포스터 /영광군청 제공

을 예방할 수 있는 최신 HPV 9가 백신(가다실9)을 무료 지원한다. 접종은 총 3회이며, 비용은 전액 군비로 지원된다.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남녀가 함께 접촉할 때 예방 효과가 가장 크며 영광군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남성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접종 희망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평일 오전(09:00~11:30)에 영광군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로 방문하면 된다. (문의: 061-350-5562, 4818)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건강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대상자들은 지원 기간 내 3회 접종을 모두 완료해 예방 효과를 높여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중심의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기 기자

장성, 세계유산 필암서원 '문화 놀이터'로

18일 역사토크·체험·골든벨 등 역사문화 행사 풍성

장성군이 오는 18일, 세계유산 필암서원에서 올해 두 번째 '역사토크 사(史)랑방콘서트'를 연다. 주인공은 조선왕조실록을 만화로 그려내 잘 알려진 박시백 작가다. 군은 앞선 5월에 열린 첫 번째 토크콘서트에서 설민석 강사를 초청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콘서트는 무더위를 피해 쾌적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암서원 집성관 내에서 진행된다. 시작은 오후 1시 집성관 강당에서 마련되는 '별론 마술쇼'가 연다. 풍선과 마술 도구를 이용한 공연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다.

2시부터는 본 행사인 박시백 작가의 강연이 시작된다. '사대부의 나라' 조선의 역사와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필암서원을 배경으로 조선의 선비정신을 함께 돌아본다.

강연이 끝나면 집성관 다목적실과 서원 일대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서예·가훈 쓰기(선비의 서) △목죽도 부채 만들기 △청



'역사토크 사(史)랑방콘서트' 포스터 /장성군 제공

사초롱 만들기 △어린이 유생복 체험 등이 관객들을 맞이하며,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재료가 소진되면 일찍 마감할 수 있다.

3시 30분부터는 다시 집성관 강당에서 '도전! 필암 유생 골든벨'이 기다린다. 박시백 작가의 강연 내용과 세계유산 필암서원, 장성지역에

관한 상식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재미있는 시간이다. 가장 많은 문제를 맞춘 학생 5명에게는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선물로 준다. 참가 대상은 초·중·고생 40명이며, 15일까지 세계유산 필암서원 카카오톡 채널로 사전 신청 '큐알(QR)코드·링크'를 확인한 뒤, 네이버 폼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김재섭 기자

